

## 중등 가정교과 임용시험 문항의 출제 경향 분석 -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

백민경\*<sup>1)</sup>  
남원고등학교\*

---

## A Trend analysis of the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for secondary Home Economics subject - From 2009 to 2016 -

Baek, Min-kyung\*<sup>1)</sup>  
*Nam-Won High School\**

###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items of the Secondary School Teacher 's Placement Test(SSTPT) which was submitted for 8 years from 2009 to 2016 according to 'detailed criteria of SSTP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tems which were covered for the last 8 year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evaluation area, the evaluation content elements, and the questionnaires since the questions presented in the 12 items of 12 evaluation areas and 42 of 43 evaluation contents. Second, each of the items in the 8-year questionnaire are as follows, Home economics and education 93 times (32.7%), dietary life 43 times (15.2%), family life 41 times (14.4%), clothing 41 times (14.4%), housing life 34 times (12.0%), consumer life 31 times (11.3%). This shows that there is not a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basic curriculum subjects of the content education and the ratio of question items. Third, the content elements of evaluation categorized by frequency of questionnaires for 8 years are as follows.

Home economics and education mainly covers 'the methodology of teaching and learning,' Family life, 'human development,' Consumer life, 'the understanding of household economics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consumer decision making,' Dietary life, 'cooking principle and practice' and 'management of dietary life,' Clothing life, 'clothing and household goods production,' Housing life, 'the understanding if residential living.' Based on these results, all the areas set in the evaluation area and content should be treated equally, and qualitative item analysis is necessary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

1) 교신저자: Baek Min Kyung, 43 manin-ro, namwon high school, jeollabuk-do, Namwon  
Tel: 063-630-7926, Fax: 063-632-7932, E-mail: mikkibere@hanmail.net

**Key words:** 가정교과(Home economics subject), 중등 교사 임용시험(teacher examination for secondary school), 문항 분석(item analysi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흔히들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는 교사의 자질이 그만큼 교육에 있어 중요함을 강조하는 대목이다(Lee, 2006). 이렇게 교사의 질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신규교사 선발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교사 후보자들의 자질을 공정히 평가하는 시험 제도의 연구와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등 임용시험은 1990년 10월 8일 국·공립 사대와 교대 졸업자에 대한 교사 우선 임용제도인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의 위헌 결정에 따라 1991년 최초로 선다형 시험의 공개전형이 실시되게 되었고, 이후 1997년도부터 교과전공과목이 서술형 평가 문항으로 출제방식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Kim & Chae, 2007). 이어서 10여 년간 유지되던 평가 문항은 크게 개편되었는데, 2009학년도부터 교사 임용 시험의 타당성, 신뢰도,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출제 근거인 ‘평가 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를 각 교과별로 개발(KICE, 2008)함으로써, 중등학교 가정교사 임용 시험을 위한 평가 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의 상세화 기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중등학교 가정교사 임용시험 출제 문항 분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매우 미미하다. 7차 교육과정 이후 가정교사 임용시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와 대한가정학회지에 실린 중등 「가정」 임용시험 문항 분석 연구는 총 4편(Kim, 2004; Kim & Chae, 2007; Yu, 2011; Jung, 2012)이고, 학위논문은 1편(Kim, 2010)에 불과하다. 특히, 2009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기준 이후 현재까지 표시과목 ‘가정’ 평가 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중등학교 가정교사 임용시험을 분석한 연구는 단 1편으로, Jung·Park·Chae(2012)는 평가 영역별 평가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중등 가정교사 임용시험 문항

을 분석하였으나, 2002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문항에 국한하였다. 즉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평가유형이 새롭게 바뀐 2013년 이후의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가정과」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연구(KICE, 2008)’에 근거하여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8년간의 가정과 임용시험 출제 문항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출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가정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에게 참고가 되고 가정과 임용 시험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8년간 출제된 중등학교 가정교사 임용시험 문항의 평가 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를 분석한다.

둘째,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8년간 출제된 중등학교 가정교사 임용시험의 기본 이수영역 및 과목별 세부 영역의 출제 문항 수, 배점 수, 비율을 산출한다.

셋째,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문항의 유형이 바뀐 지점(2013년)을 기준으로 출제 문항의 평가 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를 비교 분석한다.

## II. 관련 문헌 고찰

### 1. 중등 교사 임용 시험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은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당시의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 1991년부터 임용시험을 통하여 교원을 임용하여 왔다.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은

신규 교사 임용 후보자 선발에 필요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전형 자료를 산출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시험이지만, 선발 목적 이외에 교육 목적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 양성 교육 기관의 정상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 원리나 이론 등 지식 위주의 과도한 평가가 진행되면서 실제 교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이었음이 여러 연구들(Jung, 2004; Seo, 2007; Kwak, 2009)을 통해 나타났다.

이에 교육당국은 역기능을 해소하고 보다 현장의 교육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그동안 2단계 전형체제(1단계 - 교육학 및 전공과목 필기시험, 2단계 - 논술 및 면접·수업실기 능력 평가)로 실시되어왔던 임용 시험을 2009학년도부터 3단계(1단계 - 교육학 및 전공 선택형 필기시험, 2단계 - 논술형 시험, 3단계 - 교직 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 능력 평가)로 크게

개편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2년 2월 교과부는 중등 임용 시험의 경우, 객관식 과목을 폐지하고 교육학 논술을 신설하고 논술형 전공과목도 서답형으로 출제방식을 개선기로 확정하여 2013년에 실시되는 2014학년도 시험부터는 임용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을 부과하여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다(Jung, Park, & Chae, 2012). 즉, 중등 임용 시험이 2009학년도와 2014학년을 기준으로 출제문항 유형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Table 1>은 중등 임용시험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배점을 출제 학년도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나타낸 것이다.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의 시험 출제 지침을 살펴보

Table 1. Scope and scoring of examination by subject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Placement Test

학년도	구분	출제분야	문항유형	문항수	시험시간	문항당 배점	총점	출제비율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09~'13	1차	교육학(전공)	선택형	40	70분	0.5점	-	-	-
		전공	선택형	40	120분	1.5~2.5점		25~35%	65~75%
	2차	전공	논술형(I)	2	120분	20~30점	50점	35~50%	45~65%
			논술형(II)	2	120분	20~30점	50점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시도별, 과목별 다름	-	-
수업능력평가		수업실연 및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		-	
'14~현재	1차	교육학	논술형	1	70분	20점	20점	25~35%	65~75%
		전공A	기입형	15('14) 10('15) 8('16)	90분	2점	40점		
			서술형	6('14) 4('15) 6('16)		3~5점			
		전공B	서술형	2('14) 4('15) 7('16)	90분	4~5점	40점		
	논술형		2('14) 2('15) 1('16)	10점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시도별, 과목별 다름	-	-
		지도안 작성 수업능력평가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	-

면, 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과 전공을 5지선다형의 선택형 필기 시험으로 실시하며,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전 영역에 대한 전문적이고 균형적인 지식을 겸비한 교사자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과교육학에서 25~35%, 교과내용학에서 65~75%의 비율로 출제하였다. 1교시 교육학은 40문항에 시험시간 70분, 2교시 전공시험은 40문항에 시험시간 120분으로, 교육학 문항은 모두 0.5점이고 전공시험 문항은 내용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5점, 2점, 2.5점으로 차등 배점하였다(KICE, 2008).

2차 시험에서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1차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시에 걸쳐 각각 120분 동안 실시하였고, 문항 수는 각 차시별 두 문항씩 총 4문항으로 하며, 하위 문항을 포함하여 8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총 배점은 100점으로 1교시 50점, 2교시 50점으로 하며 문항당 배점은 20~30점으로 차등 배정하였으며, 교과교육학 35~55%, 교과내용학 45~65%로 하였다. 2차 시험에서는 교과교육학 비중이 교과내용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3차 시험의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평가는 2012학년도부터 상황조정되었고 시도별, 과목별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능력에 대한 평가를 달리 진행하도록 하였다.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시험 출제 지침을 살펴보면, 1차 시험에서는 1교시 교육학, 2교시 전공A, 3교시 전공B로 나누어 실시한다. 1교시 교육학은 논술형 1문항에 시험시간 70분으로 총 20점에 해당하며, 2교시 전공A는 시험시간 90분 동안 이루어지며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나뉘는데, 기입형은 문항당 2점, 서술형은 문항당 3~5점 배점으로 총 40점에 해당한다. 3교시 전공B는 시험시간 90분 동안 이루어지며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나뉘는데, 서술형은 문항당 4~5점, 논술형은 문항당 10점 배점으로 총 40점에 해당한다. 전공A의 경우 2014학년도에는 기입형 15문항, 서술형 6문항이, 2015학년도에는 기입형 10문항, 서술형 4문항이, 2016학년도에는 기입형 8문항, 서술형 6문항이 출제되었다. 전공B의 경우 2014학년도에는 서술형 2문항, 논술형 2문항이, 2015학년도에는 서술형 4문항, 논술형 2문항이, 2016학년도에는 서술형 7문항, 논술형 1문항이 출제되었다. 즉, 각 학년도마다 전공A와 전공B 문항의 수는 다르게 출제되었고, 2009~2013학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총 문항의 수는 대폭 줄었지만 단편적인 교과내용의 양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교과교육학 및 내용학적 지식을 폭넓게 가지고 있는 우수

한 교원을 선발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다.

2차 시험에서는 교직적성 및 심층면접, 지도안 작성과 수업능력평가(수업실연, 실기·실합)로 이루어지며 여전히 시도별, 과목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달리 진행하도록 하였다.

## 2. 중등 가정과 임용시험 관련 선행 연구 고찰

가정과 교사 임용 시험은 예비 가정과 교사들의 학습 방향을 결정지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임용된 신규 가정과 교사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로 매우 중요하다(Kim, 2007). 중등학교 가정교사 임용시험과 관련 선행 연구는 총 6편으로, Kim 외 5인(2004)이 '01~'04년까지 출제된 전영역 문항 분석을 시작으로 문항 분석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3년을 주기로 Kim·Chae(2007)는 '01~'07년까지 출제된 교과교육학 문항을, Kim(2010)은 '01~'07년까지 출제된 가정경영 및 소비자학 문항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Yu(2011)는 '01~'10년까지 출제된 전영역을 가정교과교육학 지식 관점을 적용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문항을 분석하였고, Jung·Park·Chae(2012)는 '02~'11년까지 출제된 1차 전공 전영역을 평가 영역별 평가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문항을 분석하였다(<Table 2>).

이와 같이 가정교과 전영역의 문항을 분석한 연구는 3편,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문항 분석은 각 1편씩 연구되었고,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출제·채점 관련 연구가 있다. 특히, 2009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경쟁시험은 개편된 시험체제에 따라 시험이 출제 및 채점, 관리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가정 과목의 2009학년도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출제·채점 체제 연구(Wang, 2008)는 중등학교 가정교사 임용 시험을 위한 평가영역 및 요소의 상세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표시과목 '가정'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중등학교 가정교사 임용 시험을 분석한 연구는 단 1편이며,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평가유형이 바뀐 2014학년도 이후의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중등학교 가정교사 임용시험에서 출제위원의 전공 영역과 관점에 따라 출제 영역과 각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2009학년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출제된 문항에서 평

Table 2. Status of precedent study on Secondary School Teacher's Placement Test for home economics subject

연구자(년도)	연구명	분석 대상	주요내용 및 결과
김영남·조재순·이혜자·조병은·윤인경·채정현 (2004)	중등 가정교사 임용시험의 출제 문항 분석	'01~'04년 전영역	- 가정교과교육, 식생활, 의생활, 아동·가족학, 소비자학, 가정관리로 각 분야별 문항을 분석함 - 각 분야별 세부 내용에 있어서 고르게 출제된 편이나 출제위원의 전공에 따라 특정 과목에 편중됨
김성숙·채정현 (2007)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가정과 교과교육학 출제 문항 분석	'01~'07년 교과교육학	- 가정과교육학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교육과정의 비중이 가장 높을 차지함 - 2005년 이후 단독문항의 형태로 출제됨 - 복합지식 또는 이해와 적용을 요하는 수준의 문항 출제를 제한함
왕석순 (2008)	가정과목의 2009학년도 중등 신규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출제·채점 체계 연구	표시과목의기본 이수 과목 및 분야	- 교사의 자격기준 개발과 출제 근거가 될 평가영역 및 평가 내용요소의 기준안 개발 - 2009년 중등가정 교사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부터 출제될 문항의 타당도 제고
김미경 (2010)	가정과 중등교사 신규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출제문항 분석 - '가정경영·소비자학' 영역을 중심으로-	'01~'07년 가정경영 및 소비자학	- '가정경영·소비자학' 영역이 차지하는 문항 수는 비교적 일정하나, 다른 평가 영역과 비교해 출제 비율이 유동적임 - 각 평가 내용들 간에 출제 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남
유난숙 (2011)	가정 교과교육학 지식 관점에서 본 중등 가정과교사 임용시험 문항 분석	'02~'10년 전영역	- 가정교과 내용 지식 문항은 가정교과 내용 지식의 하위영역별로 일정하게 출제된 반면, 가정 교과교육학 지식 문항은 하위영역별로 일정하게 출제되지 않았음 - 가정 교과교육학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 제안
정상희·박미정·채정현 (2012)	중등 「가정」교사 임용시험 문항 분석 - 평가 영역별 평가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02~'11년 1차 전공 전영역	- 10년간의 가정과 임용시험 1차 전공 출제 문항 분석 -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은 가정과 중등 임용 시험의 평가 영역별 내용 요소의 균등화와 다양화의 문제를 다소 완화함

가 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 중 어떤 것이 비중 있게 출제되었고 배제되었는지 그리고 전공 분야별 출제 경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20문항과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1차 전공A(기입형 + 서술형 문항)·전공B(서술형 + 논술형 문항) 67문항 총 287문항이다.

### III. 연구 방법

####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등교사 기출문제 자료실(<http://www.kice.re.kr>)에서 수집하였으며, 가정과 평가 내용요소의 8년간 출제 경향을 크게 6개로 나누어진 기본 이수과목으로 분류하여 8년간 출제된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의 1차·2차 시험의 전공 영역(1차 선택형 문항 + 2차 전공 논술형 문항)

#### 2. 분석틀 및 분석 절차

가정과 중등임용시험 출제 문항들을 분석하기 위해 문항 분석틀로 '가정'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 평가 연구(KICE, 2008)에서 제시한 '임용 상세화 기준'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틀을 바탕으로 중등 가정과 임용시험의 분야별 평가영역 및 8년간 출제된 평가내용 요소 수 비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각 분야별(가정교과교육학, 가족생활,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세부 영역의 출제 문항 수, 배점 수, 비율을 산출한 후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문제의 유형이 바뀐 시점(2014학년도)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 세부 영역 출제

문항 분석 과정에 있어서 특히, 문항내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 (배점이 높은 2차 서술형 및 논술형)과 한 문항에 2가지로 세분화되어 제시된 문항의 경우는, 문항의 주된 물음에 비중을 두어 해당되는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 요소로 분류하였다.

문항 분석은 가정교과 전공 교수 1인, 가정교육학 전공 박사 1인, 중등 가정교사 1인에 의해 먼저 ‘가정’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 내용을 숙지하고, 문항 내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가 중복되는 경우와 한 문항에 세분화되어 있는 문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각각의 분석 결과를 비교 후 일치 여부 확인을 통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지 5개의 분야에서는 평가내용 요소가 모두 출제되었다.

영역별 평가내용 요소의 출제 비중을 살펴보면, 가정과교육학 93회(32.7%), 가족생활 41회(14.4%), 소비생활 32회(11.3%), 식생활 43회(15.2%), 의생활 41회(14.4%), 주생활 34회(12.0%)가 출제되었다. 이와 같이 2014학년도 이전 가정과교육학 출제 비율 35.3%, 2014학년도 이후 가정과교육학 비율 24.2%로 나타난 것은 중등 임용 출제 지침에서 제시한 25~35% 비율에 맞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교과내용 학에서도 5개 분야가 각각 10~15% 사이의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을 보이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 1. 중등학교 가정교사 임용고시 평가 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 분석

가정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있어 가정과교육학과 가정내용학의 각 분야별 평가 영역과 평가내용 요소에 비추어 8년간 출제된 287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가정과 6개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에 따른 평가 영역 수는 12개이고 평가내용 요소는 43개이다.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에 따라 8년간 출제된 평가내용 요소 수를 분석한 결과 ‘식생활’ 분야 9개 요소 중 8개(88.9%)가 출제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

##### 2. 기본 이수영역 및 분야별 출제 문항 분석

###### 1) 가정과교육학 분야의 문항 분석 결과

가정과교육학 분야는 <Table 4>와 같이 3개의 평가 영역, 7개의 평가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8년간 가장 많이 출제된 평가내용 요소는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실제’(38.1%)이었고, 다음으로 ‘가정과 평가방법과 실제’(30.2%), ‘가정과 교육의 본질’(18.0%),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8.2%), ‘가정과교사의 전문성’(3.1%),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활용’(1.5%), ‘학교교육과정의 이해’(0.9%)의 순이었다.

가정과교육학 평가 영역에서는 ‘가정과 교수학습 및 평가’가 55회(69.8%)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평가내용 요소에서는

Table 3. Question trends for the last 8 years about evaluation contents factors in home economics subject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	평가 영역 수	평가내용 요소 수	8년간 출제된 평가내용 요소 수(%)	출제 문항 수(%)		
				'09-'13	'14-'16	계
가정과교육학	3	7	7(100)	77(35.3)	16(24.2)	93(32.7)
가족생활	2	7	7(100)	29(13.3)	12(18.2)	41(14.4)
소비생활	2	7	7(100)	26(11.9)	6(9.1)	32(11.3)
식생활	2	9	8(88.9)	31(14.2)	12(18.2)	43(15.2)
의생활	2	7	7(100)	30(13.8)	11(16.7)	41(14.4)
주생활	1	6	6(100)	25(11.5)	9(13.6)	34(12.0)
계	12	43	42(97.7)	218	66	284

Table 4. Question trends for the last 8 years about home economics and education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	평가영역	평가 내용 요소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문항수 및 배점								합계	배점 비율	
			'09	'10	'11	'12	'13	'14	'15	'16			
가정과 교육학	가정과 교육의 철학과 교사의 전문성	가정과 교육의 본질	2 (3.5)	■ 1 (20)	■ 1 (25)	1 (2) ● 1 (25)	1 (2)	▲ 1 (10)		▲ 1 (5)	9 (92.5)	18.0	
		가정과 교사의 전문성	2 (4)	2 (4)	2 (4)	1 (2)		1 (2)			8 (16)	3.1	
	가정과 교육과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	3 (6)	4 (7.5)	3 (6)	1 (2)	4 (8)	2 (6)	1 (5)	1 (2)	19 (42.5)	8.2	
		학교교육과정 의 운영	1 (2.5)			1 (2)					2 (4.5)	0.9	
	가정과 교수학습 및 평가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실제	3 (6) ● 1 (30)	4 (8) ● 1 (20)	6 (12) ● 1 (30)	6 (11.5)	4 (8) ● 1 (25)	1 (2) ▲ 1 (10)	2 (10) ▲ 1 (10)	1 (4) ▲ 1 (10)	34 (196.5)	38.1	
		가정과 평가방법과 실제	2 (4) ■ 1 (20)	3 (6.5) ■ 1 (30)	2 (4) ■ 1 (25)	1 (2) ■ 1 (25)	2 (4) ■ 1 (30)	1 (3)		1 (2)	17 (155.5)	30.2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활용	1 (2)	1 (2)	1 (2)		1 (1.5)				4 (7.5)	1.5	
	배점 계(●, ■, ▲ 불포함)			28	28	28	21.5	23.5	13	15	8	165	100
	배점 계(●, ■, ▲ 포함)			78	98	108	71.5	78.5	33	25	23	515	

●: '09~'13학년도 2차 (I)문항, ■: '09~'13학년도 2차 (II)문항, ▲: '14~현재 1차 전공B 문항임.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실제’가 34회(38.1%)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특히,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와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의 경우 8년 연속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평가 내용 요소보다 중요하게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정과 교육의 본질’과 ‘가정과 평가 방법과 실제’는 2015학년도를 제외하고 7년간 출제되었다.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면 1차 전공 선택형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을 제외한 모든 평가내용 요소에서 5년 연속 비교적 균형 있게 출제되었다. 다음으로 2차 논술형(I)의 경우 5회 중 4회는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실제’에서 식생활('09, '10) 또는 가족생활('11) 내용과 연계하여 소문항을 포함한 형태의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2012학년도에는 ‘가정과 교육의 본질’에서 1문항이 출제되었다. 2차

논술형(II)의 경우는 모든 문항이 ‘가정과 평가방법과 실제’에서 출제되었는데 2011학년도 문항은 식생활, 2013학년도 문항은 소비생활 내용과 연계하여 출제됨으로써 좀 더 실제적인 수업상황에서 교수·학습 이론을 폭넓게 적용하는 ‘적용’ 능력을 요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면 전공A 기입형·서술형 문항의 경우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와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실제’에서 3년 연속 출제된 반면, ‘학교교육과정의 운영’과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활용’에서는 1문항도 출제되지 않아 평가내용 요소 간 다소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공B 논술형의 경우 3년 연속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실제’에서만 출제되었는데, 모두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문항이 주를 이루었다.

2) 가족생활 분야의 문항 분석 결과

가족생활 분야는 <Table 5>와 같이 2개의 평가 영역, 7개의 평가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 까지 8년간 가장 많이 출제된 평가내용 요소는 ‘인간발달 과정’(38.0%)이었고, 다음으로 ‘가족관계와 가족문제’(14.4%), ‘부모됨과 부모역할’(18.1%),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11.5%), ‘가족 복지’(9.1%), ‘결혼과 가족발달’(6.3%), ‘인간 발달의 이해’(5.6%)의 순이었다.

가족생활 평가 영역에서는 ‘인간발달’이 15회(61.7%)로 ‘가족학’ 25회(38.3%)에 비해 함께 비율은 높으나, 문항 수를 비교해보면 ‘가족학’에서 10회 더 출제되었다. 이는 ‘인간발달’ 평가 영역에서 배점이 높은 논술형 문항('09, '13)이 2회 출제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면 1차 전공 선택형의 경우,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와

‘가족관계와 가족 문제’ 평가내용 요소에서 5년 연속 출제되었고 ‘인간발달 과정’은 2010학년도, ‘부모됨과 부모역할’은 2012학년도를 제외하고 4년 동안 출제되었다. 다음으로 2차 논술형 (I)의 경우 가족생활 분야에서는 단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지만, 2차 논술형(II)의 경우는 ‘인간발달 과정’('09)과 ‘부모됨과 부모역할’('13)에서 총 2문항 출제되었는데, 2009학년도 논술형 문항은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식·의·주생활 관리와 연관된 문항이, 2013학년도 논술형 문항은 인간발달 원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관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면 전공A 기입형·서술형 문항의 경우 ‘인간발달 과정’과 ‘가족 복지’에서 3년 연속 출제된 반면, ‘부모됨과 부모역할’에서는 1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8년 연속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 생애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인간발달 내용과 가족관계 및 가족문제 관련 문항은 꾸준히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고 최근 가족복지 관련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Question trends for the last 8 years about family life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	평가영역	평가내용 요소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문항수 및 배점								합계	배점 비율	
			'09	'10	'11	'12	'13	'14	'15	'16			
가족 생활	인간발달	인간발달의 이해		1 (2)		1 (2)					▲ 1 (4)	3 (8)	38.0
		인간발달 과정	1 (2.5) ■ 1 (30)		1 (1.5)	1 (2.5)	1 (2)	1 (2)	1 (5)	1 (5)	1 (4)	9 (54.5)	
		부모됨과 부모역할	1 (2)	1 (2)	1 (2)		■ 1 (20)					3 (26)	
	가족학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1 (2)	1 (2)	1 (2.5)	2 (4)	2 (4)	1 (2)				8 (16.5)	11.5
		결혼과 가족발달	1 (2)				1 (2)			▲ 1 (5)		3 (9)	6.3
		가족 관계와 가족문제	1 (2)	1 (1.5)	1 (2)	2 (3.5)	1 (1.5)		1 (2)	1 (4)		8 (16.5)	11.4
		가족 복지		1 (2.5)	1 (2)		1 (2.5)	1 (2)	1 (2)	1 (2)	1 (2)	6 (13)	9.1
배점 계(●,■,▲ 불포함)			10.5	10	10	12	12	6	9	10	79.5	100	
배점 계(●,■,▲ 포함)			40.5	10	10	12	32	11	14	14	143.5		

●: '09~'13학년도 2차 (I)문항, ■: '09~'13학년도 2차 (II)문항, ▲: '14~현재 1차 전공B 문항임.

문항수(배점)

3) 소비생활 분야의 문항 분석 결과

소비생활 분야는 <Table 6>과 같이 2개의 평가 영역, 7개의 평가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 까지 8년간 가장 많이 출제된 평가내용 요소는 ‘소비자 의사결정’(50.7%)이었고, 다음으로 ‘가계경제의 이해와 재무관리’(22.3%), ‘소비자 교육’(13.3%), ‘소비문화’(3.9%), ‘가정관리 체계’(3.9%), ‘가정자원 관리’(3.4%), ‘생애 설계와 가정 복지’(2.5%)의 순이었다.

소비생활 평가 영역에서는 ‘소비자학’이 27회(90.2%)로 ‘가정경영’ 5회(9.8%)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평가내용 요소에서 ‘소비자 의사결정’이 8회(50.7%)로 ‘가계경제의 이해와 재무관리’ 10회(22.3%)에 비해 합계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으나, 문항 수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가계경제의 이해와 재무관리’가 2회 더 많이 출제되었는데 이는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2010, 2015학년도에 논술형 문항이 출제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면 1차 전공 선택형의 경우, ‘소비자 교육’ 평가내용 요소에서만 유일하게 5년 연속 출제되었고 ‘가계경제의 이해와 재무관리’와 ‘소비자 의사결정’은 각 각 2013, 2011학년도를 제외하고 4년 동안 출제되었다. 다음으로 2차 논술형( I )의 경우 ‘소비자 의사결정’ 평가내용 요소에서 유일하게 1문항이 출제되었고, 2차 논술형(II)의 경우는 단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즉 각 평가내용 요소들 간에 출제 비율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평가 영역과 비교해 평가내용 요소들 간에 출제 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면 전공A 기입형·서술형 문항의 경우 ‘소비자 의사결정’에서만 유일하게 3년 연속 출제된 반면, ‘가정관리 체계’, ‘가정자원 관리’, ‘생애설계와 가정복지’, ‘소비문화’에서는 3년 동안 1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또한 전공B 논술형의 경우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소비자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 되었다.

Table 6. Question trends for the last 8 years about consumer life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	평가영역	평가내용 요소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문항수 및 배점								합계	배점 비율
			'09	'10	'11	'12	'13	'14	'15	'16		
소비 생활	가정경영	가정관리 체계	1 (2)	1 (2)							2 (4)	3.9
		가정자원 관리			1 (1.5)		1 (2)				2 (3.5)	3.4
		생애설계와 가정복지					1 (2.5)				1 (2.5)	2.5
	소비자학	가계경제의 이해와 재무관리	2 (3.5)	2 (4.5)	2 (4)	2 (3.5)		1 (2)		▲ 1 (5)	10 (22.5)	22.3
		소비자 의사결정	1 (2)	1 (1.5) ● 1 (30)		1 (2.5)	1 (1.5)	1 (2)	▲ 1 (10)	1 (2)	8 (51.5)	50.7
		소비자 교육	1 (2)	1 (2)	2 (3.5)	1 (2)	1 (2)	1 (2)			7 (13.5)	13.3
		소비문화				1 (2)	1 (2)				2 (4)	3.9
배점 계(●,■,▲ 불포함)			9.5	10	9	10	10	6		2	56.5	100
배점 계(●,■,▲ 포함)			9.5	40	9	10	10	6	10	7	101.5	

●: '09~'13학년도 2차 ( I )문항, ■: '09~'13학년도 2차 ( II)문항, ▲: '14~현재 1차 전공B 문항임

문항수(배점)

4) 식생활 분야의 문항 분석 결과

식생활 분야는 <Table 7>과 같이 2개의 평가 영역, 9개의 평가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8년간 가장 많이 출제된 평가내용 요소는 ‘식생활 관리’(25.2%)였고, 다음으로 ‘조리 원리 및 실습’(21.5%), ‘식생활 문화’(17.9%), ‘영양과 영양소’(11.9%), ‘식품의 특성과 선택’(8.6%), ‘식사요법’(6.6%), ‘영양평가 및 교육’(5.6%), ‘생애주기와 영양’(2.7%)의 순이었으며, ‘식품저장 및 가공’에서는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식생활 평가 영역에서는 ‘영양학’이 23회(52.0%), ‘식품과 조리’ 20회(48.0%)로 두 평가영역간 문항 수와 합계 비율이 비슷

하게 나타났다. 다만 ‘식생활 관리’(7회)가 ‘조리원리 및 실습’(11회)에 비해 문항 수가 적은 반면 합계 비율이 높은 이유는 2013학년도 ‘식생활 관리’에서 논술형 문항이 출제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면 1차 전공 선택형의 경우, ‘식생활 관리’와 ‘조리원리 및 실습’ 평가내용 요소에서 5년 연속 출제되었고, ‘영양과 영양소’와 ‘식품의 특성과 선택’은 각 각 2009, 2012학년도를 제외하고 4년 동안 출제되었다. 다음으로 2차 논술형(I)의 경우 2013학년도에 ‘식생활 관리’ 평가내용 요소에서 유일하게 한 문항이 출제되었고, 2차 논술형(II)의 경우는 5년 동안 선택형 문항이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던 ‘식생활 문화’에서 2012년에 논술형

Table 7. Question trends for the last 8 years about dietary life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	평가영역	평가내용 요소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문항수 및 배점								합계	배점 비율	
			'09	'10	'11	'12	'13	'14	'15	'16			
			문항수(배점)										
식 생 활	영양학	영양과 영양소		1 (2.5)	1 (2.5)	1 (2)	1 (2)	1 (2)	1 (2)	1 (2)	1 (2)	7 (18)	11.9
		생애주기와 영양	1 (2)			1 (2)						2 (4)	2.7
		식사요법	1 (2)	1 (2)	1 (2)						1 (4)	4 (10)	6.6
		영양평가 및 교육				1 (2.5)	1 (2)				▲ 1 (4)	3 (8.5)	5.6
		식생활 관리	1 (2.5)	1 (2)	1 (2)	1 (2)	2 (4.5) ● 1 (25)					7 (38)	25.2
	식품과 조리	식품의 특성과 선택	1 (2)	1 (1.5)	1 (1.5)		1 (2)	1 (2)	1 (2)	1 (2)	1 (2)	7 (13)	8.6
		조리원리 및 실습	2 (4)	2 (4)	2 (4)	1 (5.5)	1 (2)			▲ 1 (5)	1 (4) ▲ 1 (4)	11 (32.5)	21.5
		식품저장 및 가공											
		식생활문화				■ 1 (25)		1 (2)				2 (27)	17.9
배점 계(●,■,▲ 불포함)			12.5	12	12	14	12.5	6	4	10	83	100	
배점 계(●,■,▲ 포함)			12.5	12	12	39	37.5	6	14	18	151		

●: '09~'13학년도 2차 (I)문항, ■: '09~'13학년도 2차 (II)문항, ▲: '14~현재 1차 전공B 문항임.

문항이 출제 되었다.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면 전공A 기입형·서술형 문항의 경우 ‘식품의 특성과 선택’에서만 유일하게 3년 연속 출제된 반면, ‘생애주기와 영양’, ‘식생활 관리’, ‘식품저장 및 가공’에서는 3년 동안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아 각 평가내용 요소들 간 출제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5) 의생활 분야의 문항 분석 결과

의생활 분야는 <Table 8>과 같이 2개의 평가 영역, 7개의 평가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8년간 가장 많이 출제된 평가내용 요소는 ‘의복 디자인’(20.4%)과 ‘복식문화’(20.4%)로 같은 비율이었고, 다음으로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19.7%),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17.2%), ‘의복 관리’(10.0%), ‘의복 재료의 이해’(7.0%), ‘의복과 환경’(5.3%)의 순이었다.

의생활 평가 영역에서는 ‘의복의 제작 및 선택’이 27회

(77.7%)로 ‘의복 재료와 관리’ 14회(22.3%)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에서는 8년 연속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평가 내용 요소보다 중요하게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면 1차 전공 선택형의 경우,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과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 그리고 ‘복식문화’ 평가내용 요소에서 5년 연속 출제되었고, ‘의복과 환경’과 ‘의복 디자인’에서는 각 각 2013, 2010학년도를 제외하고 4년 동안 출제되었다. 즉, ‘의복 재료의 이해’를 제외한 6가지 평가내용 요소에서 문항이 비교적 균형 있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2차 논술형(I)의 경우 평가내용 요소에서 합계 비율이 약 20%에 해당하는 ‘의복 디자인’(12),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11), ‘복식문화’(9)에서 각 1문항씩 출제되었고, 2차 논술형(II)의 경우는 단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특히 2009학년도 ‘복식문화’ 논술형 문항은 전통 의생활과 전통 주거와 접목시킨 문항이 출제 되었으며, ‘의복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요소와 의복 및 생활용품 제

Table 8. Question trends for the last 8 years about clothing life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문항수 및 배점								합계	배점 비율
			'09	'10	'11	'12	'13	'14	'15	'16		
의 생 활	의복 재료와 관리	의복 재료의 이해					2 (4.5)		1 (2)	1 (4)	4 (10.5)	7.0
		의복 관리		1 (2)	1 (2)	1 (2)		2 (4)	▲ 1 (5)		6 (15)	10.0
		의복과 환경	1 (2)	1 (2)	1 (2)	1 (2)					4 (8)	5.3
	의복의 제작 및 선택	의복 디자인	1 (2)		1 (1.5)	● 1 (25)	1 (2)				4 (30.5)	20.4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	1 (2.5)	1 (2.5)	1 (2)	2 (3.5)	1 (1.5)	2 (6)	2 (4)	▲ 1 (4)	11 (26)	17.2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	1 (2)	1 (1.5)	● 1 (20)	1 (2)	1 (2)			1 (2)	6 (29.5)	19.7
		복식문화	1 (2) ● 1 (20)	1 (2)	1 (2.5)	1 (2)	1 (2)				6 (30.5)	20.4
배점 계(●,■,▲ 불포함)			10.5	10	10	11.5	12	10	6	6	76	100
배점 계(●,■,▲ 포함)			30.5	10	30	36.5	12	10	11	10	150	

●: '09~'13학년도 2차 (I)문항, ■: '09~'13학년도 2차 (II)문항, ▲: '14~현재 1차 전공B 문항임.

작과 연관된 문항이 출제되었다.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면 전공A 기입형·서술형 문항의 경우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에서 만 유일하게 3년 연속 출제된 반면, ‘의복과 환경’, ‘의복 디자인’, ‘복식문화’에서는 3년 동안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6) 주생활 분야의 문항 분석 결과

주생활 분야는 <Table 9>와 같이 1개의 평가 영역, 6개의 평가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8년간 가장 많이 출제된 평가내용 요소는 ‘주거생활 문화의 이해’(29.9%)이었고, 다음으로 ‘주거와 사회’(21.1%), ‘주거 환경과 관리’(20.4%), ‘주거의 계획과 선택’(12.2%), ‘주거 실내디자인의 이해’(8.2%), ‘주거 실내디자인의 실제’(8.2%)의 순이었다.

주생활 평가 영역은 ‘주거와 실내디자인’ 1개로 전체 가정과 임용 시험 배점 중에서 12%를 차지하였다. 또한 출제 비율이 20%가 넘는 ‘주거생활 문화와 이해’(10회)와 ‘주거 환경과 관리’(6회), ‘주거와 사회’(7회) 세 가지 평가내용 요소는 주거 실내디자인 관련 평가내용 요소에 비해 문항 수와 합계 비율 모두

높게 차지하였으며, 특히 ‘주거생활 문화의 이해’에서는 8년 연속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평가 내용 요소보다 중요하게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면 1차 전공 선택형의 경우, ‘주거생활 문화의 이해’와 ‘주거와 사회’ 평가내용 요소에서 5년 연속 출제되었고, ‘주거 환경과 관리’에서는 2013학년도를 제외하고 4년 동안 출제되었다. 다음으로 2차 논술형(I)과 2차 논술형(II)의 경우는 단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이는 가정과내용학 분야에서 문항 유형이 편중되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면 전공A 기입형·서술형 문항의 경우 ‘주거생활 문화의 이해’에서만 유일하게 3년 연속 출제된 반면, ‘주거 실내디자인의 이해’에서는 3년 동안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 가정교사 임용시험의 문항을 분석하

Table 9. Question trends for the last 8 years about housing life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문항수 및 배점								합계	배점 비율
			'09	'10	'11	'12	'13	'14	'15	'16		
			문항수(배점)									
주 생 활	주거와 실내 디자인	주거생활 문화의 이해	2 (4)	1 (2)	1 (2)	1 (2.5)	2 (4.5)	1 (3)	1 (2)	1 (2)	10 (22)	29.9
		주거의 계획과 선택		1 (1.5)	1 (1.5)		1 (2)		1 (2)	1 (2)	5 (9)	12.2
		주거 환경과 관리	1 (2)	1 (2)	1 (2)	1 (2)			1 (2)	▲ 1 (5)	6 (15)	20.4
		주거와 사회	1 (1.5)	1 (2)	2 (4.5)	1 (2)	1 (1.5)	1 (4)			7 (15.5)	21.1
		주거실내 디자인의 이해	1 (2)			1 (2)	1 (2)				3 (6)	8.2
		주거실내 디자인의 실제		1 (2.5)		1 (1.5)		1 (2)			3 (6)	8.2
배점 계(●,■,▲ 불포함)			9.5	10	10	10	10	9	6	4	68.5	100
배점 계(●,■,▲ 포함)			9.5	10	10	10	10	9	6	9	73.5	

●: '09~'13학년도 2차 (I)문항, ■: '09~'13학년도 2차 (II)문항, ▲: '14-현재 1차 전공B 문항임.

여 전반적인 출제경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용 상세화 기준’을 기본 잣대로 하여 가정과 평가 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8년간 중등 가정교사 임용시험 출제 문항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학년도부터 8년간 중등 가정교사 임용시험에 출제된 문항을 분석한 결과 평가 영역 12개 중 12개(100%), 평가내용 요소 43개 중 42개(97.7%)가 출제되어 평가 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와 출제된 문항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둘째, 2009학년도부터 8년간 중등 가정교사 임용시험에 출제된 각 영역은 가정과교육학 93회(32.7%), 가족생활 41회(14.4%), 소비생활 31회(11.3%), 식생활 43회(15.2%), 의생활 41회(14.4%), 주생활 34회(12.0%)로 교과내용학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별 출제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중등 임용 출제 지침에서 제시한 교과교육학 25~35%, 교과내용학 65~75%(5개 분야가 각각 10~15% 사이) 비율에 맞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8년간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별 평가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가정과교육학은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실제’(34회)와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19회), 가족생활은 ‘인간발달 과정’(9회), 소비생활은 ‘가계경제의 이해와 재무관리’(10회)와 ‘소비자의사결정’(8회), 식생활은 ‘조리원리 및 실습’(11회), ‘식생활 관리’(7회), ‘식품의 특성과 선택’(7회), 의생활은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11회), 주생활은 ‘주거생활 문화의 이해’(10회) 등으로 출제되었다. 특히, 가정과교육학 분야 중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와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 의생활 분야 중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 주생활 분야 중 ‘주거생활 문화의 이해’에서는 8년 연속 매년 1문항 이상 출제되어 다른 평가 내용 요소보다 중요하게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과 개편할 때마다 시수감소와 선택과목으로의 전환 등 가정교과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가정과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평가 문항 분석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가정교과목의 평가문항 분석을 통한 출제 경향 연구는 예비 가정교사의 질적 성장과 교사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출제 문항 분석 시 문항 수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므로, 문항 당

배점에 대한 분석과 한 문항당 세분화(한 문항에 두 가지 영역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항) 되어있는 문항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점으로 남았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과 임용시험에서 문항 출제의 개선점 도출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제언을 하던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8년 연속 출제된 평가내용 요소가 있는 반면 ‘식품저장 및 가공’에서는 8년 동안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또한 문항 유형이 바뀐 2014학년도를 기준으로 가정과교육학 1개, 가족생활 1개, 소비생활 4개, 식생활 3개, 의생활 3개, 주생활 1개 평가내용 요소에서 3년 연속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정 평가 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과목 내에서 지식의 상대적 중요성을 초월하여 평가 영역으로 설정된 모든 영역들이 균등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미시적인 관점으로 질적인 문항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문항 분석 전 과정에 전문가들의 참여와 분석을 통해 좀 더 타당한 문항 분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Jung S-H, Park M-J, & Chae J-H (2012). An analysis of examination items for secondary Home Economics teaching certification-Focusing on evaluation content elements of Home Economics. *Korea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2), 135-154.
- Kim K-Y (2016). Analysis of the Selection Examinations for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Technology. *The Korean Journal of Technology Education*. 16(2), 21-44.
- Kim M-K (2010). *An analysis study on the home-economics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for secondary school: 'home management & consumer science' question-items in center*. Master's Degree in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Kim S-S & Chae J-H (2007). An Analysis of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Discipline Items in the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for Secondary School. *Korea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3), 149-168.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08). Detailed competency evaluation for the class and workshop teacher development and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major areas a source book.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Korea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08).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표시과목 「가정」의 교사 자격기준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 *A research paper. CRE* 2008-6-32.

Kwak S-C, Pyun D-W, Nam Y-S, & Hong J-Y (2009). A Trend Analysis of the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for Secondary Special Teachers. *Special educational needs study*. 43(4), 23-46.

Kim Y-N, Cho J-S, Lee H-J, Cho B-E, Yoon I-G, & Chae J-H (2004). Analysis of statements given at the secondary teacher qualification exams home. *Teacher education*. 20(1), 260-271.

Lee D-S (2006). An Analysis on the Selection Examination for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Social Studies by th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Korean social studies Association*. 45(4), 133-161.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13). Revised program rules education official competitive examination for selecting eligible candidates for appointment.

Yu N-S (2011). An Analysis of the Items for the Home Economics Teacher Selection Te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Home Economics Educ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1), 1-16.

Wang S-S (2008). *A subject of the 2009 school year teaching competitive examination of questions for selecting new candidates for appointment. and a scoring system.* Korean famil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2008 Summer for a source book. 29-8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8년간 출제된 중등 가정교사 임용시험의 문항을 ‘임용 상세화 기준’을 기본 잣대로 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8년간 출제된 문항을 분석한 결과 평가 영역 12개 중 12개, 평가내용 요소 43개 중 42개가 출제되어 평가 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와 출제된 문항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둘째, 8년간 출제된 각 영역은 가정과교육학 93회(32.7%), 가족생활 41회(14.4%), 소비생활 31회(11.3%), 식생활 43회(15.2%), 의생활 41회(14.4%), 주생활 34회(12.0%)로 교과내용학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별 출제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셋째, 8년간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별 평가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가정과교육학은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실제’, 가족생활은 ‘인간 발달 과정’, 소비생활은 ‘가계경제의 이해와 재무관리’와 ‘소비자 의사결정’, 식생활은 ‘조리원리 및 실습’과 ‘식생활 관리’, 의생활은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 주생활은 ‘주거생활 문화의 이해’ 등으로 출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영역 및 내용에 설정된 모든 영역들이 균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미시적 관점으로 질적인 문항 분석이 필요하겠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01월 19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02월 01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06월 03일